

2024년 8월 11일(주일) 제1695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제79주년 광복절

“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출 15:1하-2상)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였도다
그 때에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 126:1-3)



길고 길었던 태평양전쟁은 미국이 일본 두 곳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일본 왕의 항복 선언으로 종식되고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해방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유엔에 의하여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전후 관리책임을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38도선은 오래 전 러일전쟁 이전에 일본이 소련에 제안한 관할 경계선으로서 한반도의 중간선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소련 스탈린의 영향으로 일찍이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하였고 남한은 좌우익의 분쟁에 휘말려 밤에는 핵불과 썰매가 앞장선 공산주의 나라가, 낮에는 대한민국으로 회복되는 난장판 나라꼴이었습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총선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으나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북한공산주의와 절대 타협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때마침 1948년 2월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의안으로 채택되어 가능한 지역(남한)만이라도 총선을 해야 함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구, 여운영, 김규식 등의 남북통합 정부수립 주장에 부딪혔으나 이승만은 공산정권과 민주정권은 공생할 수 없음을 설득하고 그 해 5월

10일 남한의 784만 명의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어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의원수를 300명으로 정하고 남한에 200명, 북한에 100명을 배정한 것입니다.

선출된 의원 198명은 북한의 100명과 제주도의 2명이 빠진 숫자입니다. 당시 제주도에서는 4.3사건의 여파로 총선을 거부해 선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되었고 초대 국회의장으로 이승만이 추대되어 이윤영(목사)의원의 개회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라의 장래를 기원하였습니다.

개원 국회에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했으나 본인이 거부하고 의원 무기명 투표를 제안하여 대통령이 되고 이어서 2대 국회의장으로 신익희를 선출하여 원 구성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해 8월 15일, 광복기념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를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세우게 하시고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의 은혜를 감사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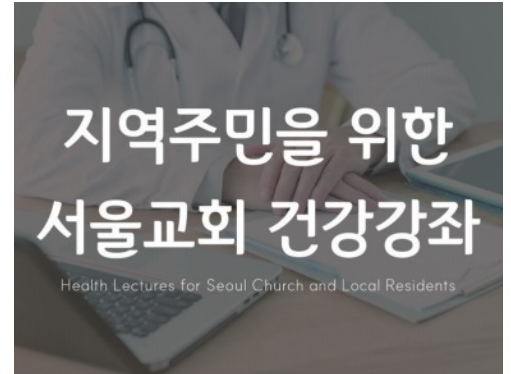
(기고자 : 정병무 은퇴장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일시

7월 14일 ~ 8월 11일
(매주일) 오후 12시 20분

장소

서울교회 1층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

주최:서울교회 의료선교부

이번 주 건강강좌 주제 및 강사

· 주제 : 씹는 힘, 치매를 예방한다



박은진 집사
(치과보철과 전문의)

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교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수련, 석사
공직치과의사회 부회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전문평가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감정위원
일반 보철, 특수 보철, 임플란트 보철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국가의 영광과 수치

대하 26:1-8



손달익 위임목사

관료사회가 부패하고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생각과 제도를 고집하던 나라가 맞이했던 불행한 역사가 우리의 일제강점 35년의 역사였음도 우리는 이를 매우 아프게 성찰해야겠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나라 역사는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극심한 경제난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하여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국가 정체성이 손상되고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우리 사회의 윤리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국가

사회의 여러 일들이 옳고 그름을 생각하거나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말하지 않고 진영논리에 휩싸여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대를 책임진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심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역사적 숙제와 기도제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란 경제수준이 높은 나라를 의미하지 않고 선진화된 의식 수준을 가진 국민이 있는 나라입니다. 1945년의 광복을 넘어 존경받는 국가의 모습을 갖춘 새로운 광복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앞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웃시야 왕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지는 복을 누렸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병 환자가 되고 권력에서 축출되어 별궁에 거하다가 마침내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웃시야 왕의 생애가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국가 사회에 끼쳐야 하는 지에 대하여 깊이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1. 웃시야의 신앙

웃시야는 다윗의 때로부터 제12대 유다 왕으로 16세 때 즉위하여 무려 52년간을 재위하면서 많은 치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그의 치적을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먼저 웃시야 왕은 주변을 평정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만성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주변의 여러 부족들의 잦은 침공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지중해 해변도시들에 거주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요단 강 동편에 위치한 북쪽의 암몬에서부터 남쪽의 아라비아에 거주했던 부족들은 틈만 있으면 침공하여 약탈과 살육을 자행했습니다. 웃시야는 그들 모든 지역들을 평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솔로몬 시대 이후 중단되었던 조공을 재개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심각한 식량문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농업을 장려하고 식량생산에 심혈을 기울여 식량 자급시대를 열었습니다. 세 번째로 무기 산업을 발전시켜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웃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목시를 밝히 아는 스가라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은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4-5절). 웃시야 왕이 16세의 어린 왕으로 즉위해서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무기 산업을 발전시키는 등의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 저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으며, 스가라 선지자의 영적 지도를 잘 받아들였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웃시야 왕은 비록 어리지만 진지한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 윤리에 철저했으며 자기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적 자산이나 정신 자산이 지극히 빈곤합니다. 물질주의가 난무하고 모든 분야에서 권력에 대한 욕망이 지나칩니다. 국민 전체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독하고 거친 표현을 일삼습니다. 공존과 일치의 가치가 사라지고 독점주의가 난무합니다. 이런

정신으로는 부흥하는 시대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근본정신인 사랑, 정의, 공정, 성실 등의 가치가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이 신앙정신에서 역사를 창조해 내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2.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간 웃시야가 시험에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권력이 절정에 이르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는 왕에게 금지되었던 마지막 한 가지인 종교의 영역에 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를 허락하실 때 왕에게 절대 권력을 주셨지만 한계는 매우 분명하게 정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과 종교적 분야의 일은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두어 이 두 가지는 제사장들만 감당하게 했습니다.(16절) 성경은 웃시야 왕의 이런 행동을 그의 신앙적 열정이 지나쳐 행한 ‘선의의 실수’라고 말하지 않고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범죄 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성전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 아사라가 동료 제사장 80명과 함께 왕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지만 웃시야 왕은 제사장들을 뿌리치고 결국 제단에 분향을 시도했고 집요하게 반대하는 제사장들에게 분노할 때 그에게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쫓겨나서 성전 밖으로 나갔고 별궁에 감금되었다가 니병으로 죽었습니다. 52년을 왕으로 재위하면서 그의 치적이 다윗에 버금가는 빛나는 업적이었지만 마지막에 자행된 이 실수는 그 개인에게도 민족의 역사에도 치명적 결함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웃시야 왕은 50여 년의 위대한 역사가 마지막 한 순간의 일탈로 모두 무너지고 그의 인생 전체가 부정되었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의 삶에 스며든 교만은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이루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그는 자기 생각을 절대 기준으로 삼았고 자기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웃시야 왕이 자기 권력과 영광을 과시하려 성전 제사까지 직접 감당하려 하지만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고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시오”(시 103:14),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벧전 1:24). 우리는 다 무익한 종들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을 뿐입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일생 우리 삶을 지배하는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자기 기쁨 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는 국가의 존엄을 지키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힘을 과시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정의를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자기 자랑에 열중하고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며 악을 행하는 범죄입니다.

우리는 웃시야 왕의 역사에서 겸손할 때 복을 주셨고 교만할 때 버리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온전한 헌신과 완전한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끝없는 비난과 누명과 배신과 버리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노하지 않으시고 대가를 요구하시는 법도 없으시고 섭섭해하시지도 않으시고 누구를 비난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끝까지 겸손히 기도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풍요로운 내적 충만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겸손함으로 새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무익한 종들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을 뿐입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일생 우리 삶을 지배하는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정우형
(고등부)

이번 여름수련회는 고등부원으로 맞는 마지막 수련회였던 만큼 기대가 크고 설레었던 수련회였습니다. 그리고 유·초·중·고등부가 함께하는 연합 수련회라서 중등부에 있는 동생과 사촌동생, 유년부 보조교사로 섬기는 누나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서울교회 수련회는 학생인 우리들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으로 전해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까지 준비되어서 일단 가기만 하면 영육이 풍성해지곤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갔다가 혼자 남아 유학생 생활을 하고 있기에 겨울수련회는 참석할 수 없었지만 매년 여름수련회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왔습니다.

이번 연합 수련회도 역시 너무나 재밌었고 유익한 코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많은 친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한참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믿음의 대선배님들이 나눠주신 경험과 조언이 가득했던 비전 찾기 프로그램은 잊지 못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원래 인사를 잘 못하고 지내던 다른 부서 동생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하며 2박 3일을 같이 생활한 덕에 이제는 교회에서 만나도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아닌 봉사자로 함께 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며 내년 수련회를 기대해 봅니다.



한예승
(중등부)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로 올해 여름수련회가 진행되었고 즐거운 물놀이, 신나고 은혜로운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의 시간에 더해 청소년의 시기에 유익하고 현실과 미래에 도전을 주는 여러 프로그램들에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면서 문득 “과연 나는 내 주변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선한 빛을 얼마나 비추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

했던 적이 적지 않았기에 이번 수련회가 스스로를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수련회에 있었던 아주 신나는 물놀이 프로그램은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 그리고 소중한 우정을 쌓을 수 있었어요.

집회시간에는 여러 좋은 말씀들과 뜨거운 찬양으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었고 이모저모로 여러모로 유익했던 내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가 되었던 수련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했던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2학기가 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유서연
(초등부)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제목으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한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영광을 잊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우리 세상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

음 속에 품고 나아가면서 우리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2박 3일 일정 모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덕분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모두 사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아 가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제 수련회는 끝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가페 학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서울교회 손달의 위임목사님과 당회, 선교위원회, 인도기도팀, 성도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인도에 이상 기후로 55년 만에 낮 기온 50도, 밤 기온이 35.2도의 폭염이 엄습하여 입원 환자 4만 명과 사망자 수가 110명으로 집계되었지만 사실상 사망자 수는 더 많이 발생하였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사이클론 '레말'이 아삼, 웨스트벵갈, 트리푸라, 델갈라야 주를 강타하면서 폭우와 홍수가 발생하여 해안가 저지대 수백 주민의 집이 침수되었고 고지대의 산사태로 수십 가옥이 침몰되었으며 사상자도 수십 명이 넘는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이곳 치가라푸라 마을은 사이클론 '레말'의 직접 영향은 받지 않아 큰 피해는 없고 폭염으로 인해 아가페센터에 심은 코코넛 트리, 로얄 팜 트리가 고사(枯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가페교회 '지반' 전도사의 사모가 임신을 하여 다음 달이 해산일이어서 순산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가페교회의 동역자 '끼티' 복음 전도자의 모친이 병환으로 별세(67세)하셔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끼티 형제의 부친은 경찰관으로 정년 퇴임을 하고 지역 복음화에 앞장을 설 정도로 방가라펫트 지역에 있는 인도 현지 교회의 신실한 성도입니다.

나렌마 성도의 딸이 이혼 후 정부 병원에 직원으로 취직하여 근무하다가 퇴근길에 오토바

이 사고로 별세하여 외손녀 3명을 홀로 돌보며 살아가는데 아직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가페학교는 매년 신입생을 받아 올해는 7학년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학교의 좋은 이미지가 주변 지역에 알려져 편입생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인원은 192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교사는 각 반 담임교사, 힌디어 교사, 칸나다어 교사, 컴퓨터 교사 모두 11명, 경비원 1명, 도우미 교사 1명, 스쿨버스 기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치가라푸라마을 인근 도시 베타파말갈라 지역의 지방 의원 두 명이 저희 아가페학교에 오셔서 유치원(L.G.K/ U.G.K) 학생과 아가페학교 학생들에게 공책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가페학교 영어교사가 결혼하면서 사직을 하여서 영어교사가 결원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실력과 성실을 겸비한 영어교사와 아가페학교 스쿨버스 기사도 채용하였습니다.

저희 아가페센터의 기도제목은 치가라푸라마을, K.G. 꼬페마을, 페담팔리마을의 복음화와 2층 교실 3칸의 건축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가페교회와 아가페유치원, 아가페학교가 부흥 발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가나할리교회, 니모처나교회, 단네교회, 그레이스교회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제목

1. 아가페교회를 통해서 치가라푸라, K.G.꼬페, 페담팔리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2. 아가페학교를 통하여 미래의 기독 일군과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3. 나가나할리교회, 니모처나교회, 단네교회, 그레이스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4. 아가페학교 2층 3개 교실 증축 공사가 마무리되어 신입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5. 인도 동역자(목회자)를 위해서 (지반 전도사, 이삭 목사, 사지 목사, 비스타과 목사, 위나이 목사)!
6. 인도의 복음화, 평등, 평화를 위해서!
7. 자녀들의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결혼을 위해서
8. 이상식, 김정옥 선교사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서!
9. 지반 전도사의 사모 순산을 위해서!
10. 사짬마 성도의 장남 사띠쉬 알콜중독 치유를 위해서!
11. 나렌마 성도 외손녀들을 위해서(엄마가 이혼 후 교통사고 사)!
12. 파비뜨라 가정집 건축을 위해서!
13. 스웨따의 가정의 치유와 구원을 위해서!
14. 라마카 성도 딸의 가정회복을 위해서!
15. 엔테쉬 성도의 아들 결혼을 위해서!
16. 아룬 어린이의 아빠 건강을 위해서!

인도에서
이상식·김정옥 선교사



17강 : 사도신경-성자 하나님(2)

32문 :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그리스도, 곧 왕이자 제사장이자 예언자로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사도행전 11장 26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사역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제자된 우리도 3중직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2문에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3중직을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에 대하여 관점을 달리해서 한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성전과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늘날 교회봉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33문 :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대 교회의 기독교론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일본질’이라는 용어와 그 개념은 이단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해서 우리와는 동일본질이지만

성부 하나님과는 동일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통 니케아파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본질인 인성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본질인 신성 모두를 가지고 계신분, 곧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리우스파와 니케아파의 논쟁은 마치 성부와 성자의 친자확인 소송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친자확인 소송이라고 하면, 실제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서 물려받은 유전자 DNA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유전자 DNA가 같다’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본질이 같다,” 또는 “동일본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본질이다 또는 본질이 같다는 설명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약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동일본질이시기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34문 :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니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Kyrios입니다. 헬라인들은 다신교문화 안에서 서로 다른 신들을 자기들의 kyrios라고 부르면서 이 신들이 ‘구원’을 베푸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칭송하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

이 바로 죄와 죽음 곧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핏값으로 치루시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35문 :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

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성부에게서 신성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36문 :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므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잉태되셨기에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어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닌 갓난 아기로 성모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37문 :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이사야 53장)’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고난 받는 종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멸시와 저주와 죽음을 당하시면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신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분이 고난받으셨기에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도와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동정

- 콘서트 : 4교구 강석범 성도
(할렐루야찬양대 솔리스트)
2024 슈퍼뮤지컬 갈라페스타
8월 31일(토) 19시 서울놀이마당



식사 제공



- 1교구 채교천 안수집사·정금희 권사
채승호 집사
3교구 김지호 집사·채민정 집사·김로하
(범사에 감사드리며)

- 개업: 5교구 김경숙 집사
(배효복 안수집사 부인)
예반디벨로먼트(이류중개무역) 개업
강동구고덕비즈밸리로 강동U1센터 B동 609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김민우 오원준 감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지하 주차장 이용 에티켓

1. 주일 종일 봉사자는 3층, 혹은 뒷열에 주차하기
2. 앞열 혹은 2중 주차 시 꼭 주차관리실에 자동차 키 보관하기
3. 운전석 전면에 연락처 올려놓기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맥체인 성경통독			
8월12일	월	렘 7:30-12:17	삼상2	롬2	렘41	시15,16
8월13일	화	렘 13-16	삼상3	롬3	렘42	시17
8월14일	수	렘 17-20	삼상4	롬4	렘43	시18
8월15일	목	렘 21-23	삼상5,6	롬5	렘44	시19
8월16일	금	렘 24-27	삼상7,8	롬6	렘45	시20,21
8월17일	토	렘 28-31	삼상9	롬7	렘46	시22
8월18일	주일	렘 32-34	삼상10	롬8	렘47	시23,24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8월의 태양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섬김의 영성이 뜨겁게 하소서
2. 서울교회 제4대 담임목사님 청빙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지와 후원교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 하소서
3. 무더위에 치장 국민을 보호,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위에 통일된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 전도사
박미라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성선훈
- ◇ 협동목사
양정호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